

특별법 통과 후 첫 여순사건 추념식

道, 여수 이순신광장서 합동위령제 희생자 넋 기려 김총리 영상 추모사 “여순사건은 가장 아픈 손가락”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을 맞아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을 개최했다.

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주철현·김희재·이윤민 국회의원, 장석용 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도의원, 유족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관도 운영한다.

식전행사는 4개 중단 추모행사로 이뤄졌다. 1부 위령제에서는 묵념사이념, 진혼무, 유족 사연 낭독과 추모공연이, 2부 추념식에서는 추모영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피해자·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이 바로 세워지도록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후속 조치로 시행 조례 제정, 국비 확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유족 증언 녹화사업,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족지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전남과 전북·경남 등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의한 대표적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16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올해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와 도민의 간절한 열망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봤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을 기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려 김영록 전남 지사가 분향을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화환을 보내왔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모 영상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념식에 보낸 영상추모사에서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나가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많은 시간이 지난지만 결코 흘러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라며 “내년 출범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추념식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행사는 식전행사, 1부 위령제, 2부 추념식으로 나눠 열렸으며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만든다

광주시, 주거재생 등 10개 분야…홈페이지 의견 수렴

광주시는 20년 후 광주의 모습을 시민이 직접 그려보는 ‘2040 광주플랜’ 2단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40 광주플랜’은 2040년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용역 착수와 함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기획단’을 발족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광주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에는 전문적인 용어와 도면으로 구성돼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2040 광주플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티저영

상, 교육영상, 카드뉴스, 손수제작물(UCC) 등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의 자료를 제공하고 1단계 시민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이번 2단계 시민참여는 20일부터 4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2단계는 ‘2040 광주플랜’ 홈페이지에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주거재생 ▲교통 ▲공원녹지 ▲복지 ▲경관 ▲경제 ▲토지이용 ▲방재안전 ▲문화 ▲환경 10개 분야에 대해 영상과 카드뉴스와 함께 제공하고, 분야별로 댓글 또는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2단계 시민참여 의견이 모아지면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과 이를 반영한 부문별 자료를 정리해 연말에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오송지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市, 21일-11월6일 60여 곳 대상, 무허가 배출시설 등

광주시는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지도·점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각 구청 담당 공무원·환경전문가·민간감시원이 참여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 뒤 환경 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경고·조업정지·고발 등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재우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 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98곳에 대한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 85곳을 행정 조치했다. /이종희기자

김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 육성”

도민과의 대화… “지역 SOC 획기적 개량할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고흥군을 우주개발의 꿈을 실현할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우주항공기술 집약체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다”며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을 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고흥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첨단산업 1번지로 육성하겠다”며 “드

론·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의 푸드밸리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고흥 거금-완도 고금 구간이 국도로 승격하고 고흥 영남-팔영 등 고흥의 SOC사업이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며 “고흥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4차선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추진할지 도민 뜻을 잘 살피고 고흥의 SOC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겠다”

고 약속했다.

특히 고흥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도록 체류형 숙박시설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이 최소 2박3일 전남에서 묵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수와 진도만 거쳐 가는 것보다 고흥에도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도 고흥군에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흥군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도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기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종일 도양읍 변영회장은 ‘도양읍해양쓰레기 야적장 부지 확장’을, 김중을 흥양농노조합법인 대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1년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데 고흥군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마트팜도 공익적 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내는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증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송기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박진권·박선준 도의원 등 21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비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최적차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 2021-1244호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동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열람)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110호선)
○ 명 칭 : 서동 112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부계획	비 고
도로시설	142.69	100	소로3-110호선 확포장	
합 계	142.69	100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1. 10. 18 ~ 2021. 11. 01 (15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남구청 주택과
○ 의견제출 서식 : 공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 제출방법 :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주택과(☎062-607-4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375-5880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